

순천시, 경제활력·민생안정 최우선...“일류도시 도약”

문화·우주·바이오산업 3대 경제축...도시 경쟁력 강화 노관규 시장 “시대적 흐름 안목...인접 지자체 연대·협력”

순천시가 2025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최우선의 가치를 강조하며 일류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2025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문화·우주·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삼아 잠재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도시경쟁력 등 3개 분야의 실행계획과 정책을 점검했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문화, 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 이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주·방산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특화 육성하며, 바이오산업은 승주읍 일원에 620억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관규 순천시장(가운데)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문화·우주·바이오산업이라는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시민 돌봄 정책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순천시는 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소아응급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생수당 지급과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한다.

도시경쟁력 분야에서는 1인당 GDP 4만 달러(약 5천888만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한다.

연항동 지역에 국제규격 수영장과 다목적 복합시설을 유치해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국가 해양정원 조성과 동천 뱃길 연결, 육전정비 등을 통해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도약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 속에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미래로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2025년은 경제 활력과 체감형 민생안정을 더욱 단단히 행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산업·지형 변화 등 시대적 흐름을 내다보는 안목과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순천=정기 기자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성화 채화지로 확정된 ‘장성군 백암산 국기단’에서 유교식 제례 봉행을 재현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전남체육 성화 채화지, 장성 ‘백암산 국기단’

조선시대부터 제례 봉행해 온 유서 깊은 장소

장성군이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화 채화지를 백암산 국기단으로 확정했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백암산 국기단은 조선시대부터 나라의 평안을 기원해 온 유서 깊은 장소다. 장성부사와 인근 군현 관장들이 유교식 제례를 봉행했던 기록이 전해진다. 1983년부터 장성문화원이 주관해 제례 봉행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군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황룡정원 야외무대, 축령산 편백숲, 장성호 등 지역 내 주요 명소를 놓고 논의한 끝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백암산 국기단을 성화 채화지로 최종 결정했다.

성화는 대회 전날인 오는 4월17일 국기단에서 채화해 북하면, 북이면 등 10개 면을 거쳐 장성읍시가지로 돌아 장성군청에 안치된다. 이후 개막식 당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내 성화대로 옮겨질 예정이다.

성화 봉송 과정에선 자체 공모를 통해 마련한 특색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읍·면·주자 봉송 구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성화 환영행사도 계획 중이다.

체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중 장성군수는 “백암산 국기단에서 성화를 채화해 양대체전의 성공 개최와 200만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한다”며 “장성 최초로 열리는 올해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이 최근 봉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미엄 담양 딸기의 첫 베트남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 프리미엄 딸기, 베트남 수출길 올라

봉산농협 산지유통센터, 홍콩·캐나다 등 6개국 수출 예정

프리미엄 딸기 명가 담양군이 올해 첫 딸기를 수출했다.

담양군은 “최근 봉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박요진 봉산농협장, 이규현 도의원, 조관훈·장병영 군의원, 김나빈아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연덕 산업안전국장, 윤재현 농업유통과장, 김미심 봉산면장, 국중덕 봉산농협 영농자재판매장 상무 등이 첫 선적식을 열고 딸기 250kg을 베

트남으로 수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올해 4월까지 6개국(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으로 주 1회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양 딸기는 내수용으로 각광받고 있어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 홍콩, 태국, 싱가포르, 미국 등 전세계로 100여

를 수출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앙지(Angier)’와 업무협약을 맺고 프랑스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지에 딸기 육묘를 수출하며 로열티를 받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담양딸기의 세계화에 앞장서도록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3대 주산지 중 하나인 담양군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 ‘죽향’ 딸기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kg당 3만8천363원(특등급/2025년 1월14일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담양=정승근 기자

여수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세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센터 용역 보고회...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여수시는 19일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고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인구정책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수의 인구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을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소센터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문가 자문을 수렴한 후 인구진단을 통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인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

역사회의 관심과 동참,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지역기업, 사회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구정책은 출산, 결혼, 임신, 육아 등 전 생애와 연관돼 있고, 정주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도 밀접해 시의 미래를 이끌 중대한 전략”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실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과 외국인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공직자 공동주택 ‘홍양관’ 입주식

신규 공무원 16명 입주...총 8세대 가전·가구 등 갖춰

고흥군은 19일 “지난 16일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공직자 공동주택 ‘홍양관’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주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고흥읍 기관사회단체장, 입주공직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직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축하했다.

‘홍양관’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9억8000만원을 투입, 고흥읍 남계리에 위치한 옛 KT 사택을 매입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상 4층 규모로 총 8세대가 있으며, 세대별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가전, 가구 등을 갖춰 쾌적하

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자로 선발된 직원은 총 16명이며, 이들은 입주식을 마친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해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공동주택을 확대하겠다”며 “고흥군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보성군, 농업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굴착기·드론 등 자격 교육생 모집...교육비 50% 지원

보성군은 19일 “굴착기, 지게차, 드론(초경량 비행장치) 3개 기종의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들이 전문 자격이 필요한 농업기계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된다.

모집 인원은 총 80명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 또는 지게차) 60명, 드론 조종사(1종) 20명이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7년 1월1일 이전 출생) 농업인으로, 굴착기와 드론 과정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지게차 과정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교육 신청은 2월3일(월) 오전9시부터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법을 익혀 농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팀(061-850-5718)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 ‘달리는 국민신문고’ 22건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한국소비자원 등 구성 전국순회 상담

장흥군은 “최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과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 기

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는 출장상담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흥군과 강진군, 완도군에서 접수된 총 2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행정, 복지·노동, 농업·산업, 주택·건축, 교통·도로, 지적분쟁 등 다양한 분

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접수해 심층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